

옥정호 수상레포츠 단지 갈등 고조

임실군 상생발전협, “정읍 상수원 수질오염과 무관”... 정읍 장학수 도의원 “난개발 방지” 맞서

9일 임실군 옥정호 상생발전협의회는 전북도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임실군이 조성하고자 하는 수상레포츠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다”면서 “전북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전북도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 조성을 방해하는 것은 임실자치권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전북도민 모두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읍 상수원 수질오염 문제는 수상레포츠 단지조성과 무관하고

정읍시가 관내 수질관리 문제를 등한시하며 그 모든 책임을 임실군에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실군은 옥정호의 수질을 1급수로 관리해 정읍에 공급하고 있지만 정읍시 도원천 따라 철보취수지점에 이르면 2급수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임실군과는 무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임실군이 조성하고자 하는 수상레포츠 단지는 임실군민의 공간이 아니다. 국비를 통해 전북도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전북의 가평, 양평을 만들어 나뉜 전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자원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 더불어 잘사는 전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장학수 도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정읍시의 통 큰 양보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잘못된 내용이며 임실군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실군의 양보로 설정된 협약서를 갖고 정읍시에게 권한 만을 부

여하고 임실군에 의무만을 지우는 조례는 선의의 약속을 강제하는 지역이 기주의임을 밝히고 지방자치조례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장학수 의원은 최근 “정읍시민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자마자 아무런 상의 협의도 없이 식수원인 옥정호에 수상레포츠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면서 “옥정호 상수원 난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광명 기자)

남원시, 규제개혁 추진 ‘우수’

남원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실적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는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 주어진다.

남원시는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 규모 확대(2만~8만㎡), 건축 용적률 완화(준주거지역 400~600%, 중심상업지역 900~1,300%, 일반상업지역 800~1,000%), 도로점용료 분할납부규정 마련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체법규를 개정하였다.

또한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하던 임의규제를 찾아내 93건을 정비하였고, 37건의 불합리한 상위법령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법령개선을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한편, 남원시는 2015년 대한상공회의소가 228개 지자체의 기업관련 조례·규칙 및 기업지원 제도를 분석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발표한 ‘경제활동 진흥성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수상하여 규제개혁 우수 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인 바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중심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남원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5월 10일자로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검토가 반영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된 가운데 9일 송하진도지사가 점검실에서 멀티비전을 보며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초읽기 돌입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고시... 올해 타당성 용역 진행 계획

새만금 공항 건설의 최대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만금 공항 타당성 검토가 반영된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2016~2020)’을 10일 고시했다.

고시 내용은 ‘장래 새만금 개발 활성화 추이 등을 감안해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사업시기 등 타당성을 검토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확보한 용역비 8억원으로 조만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공항개발을 위한 최대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시기는 내년쯤으로 예상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B/C, 비용대비 편익)이 주를 이룬다. 이에 대해 도는 최근 한·중 FTA 타결로 인한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바탕으로 무난하게 경제성을 확보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번엔 고시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내용인 ‘최근 저비용항공시장의 활성화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따라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가 항공조건과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공항개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공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별 새로운 수요증가에 걸맞은 공항시설을

확충하고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문주도 새만금 공항의 무난한 예타 통과를 예상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도는 예타 조사 시 중요 포인트인 항공 수요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다.

우선 국토부가 이번 제5차 계획에서는 적극적인 항공수요를 반영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가 지난해 실시한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한국항공대학교와 전북도 공동으로 조사)에서는 전북권 항공여객수가 2022년 약 130만 명, 2025년 약 190만 명, 2030년 약 402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 마포군 및 청주·무안공항과의 이해관계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정영수 기자)

식사비 3만원·선물 5만원 이내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정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고·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둔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 제정안에는 허용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기준과 외부강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식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 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이 기준은 공무원 외에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직종별로 차등을 둘 사유가 충분하지 않고 시

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시행령에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료의 상한액도 담겼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이 설정됐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다. 다만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달 27일 공포됐다.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5월13일~6월22일)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용주 기자

벼 재해보험 가입 이달 말까지 해야

고구마·옥수수는 27일까지

9일 전북도는 도민들에게 벼, 고구마, 옥수수 등 농작물재해보험을 빠른 시일 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고구마와 옥수수 가입 기간은 5월 27일까지이며, 벼 가입은 5월 31일까지”라고 말했다.

농가보험료는 79%는 도에서 지원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무사고환급 제도’가 시행돼 예년에 비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총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제외한 농가 보험료가 20만원인 경우, 무사고환급 특약 보험료 2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무사고시 약 65%인 1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고구마와 옥수수의 가입기준은 보험가입금액이 각각 300만원, 100만원 이상 되어야 하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까지 보장된다.

/정영수 기자

도내 4개 대학서 금융 아카데미 운영

9일 전북도는 도민들의 금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증진을 목적으로 금융특강프로그램인 ‘2016년 금융아카데미’를 상·하반기에 걸쳐 총 6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융아카데미는 금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의 현실을 감안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도내 4개 대

학을 순회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진행한다.

이번 금융아카데미는 금융 전반에 걸친 기초 지식과 기금운용본부 이전 효과와 전북 금융산업의 미래를 현업 종사자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 자기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지난 2년 동안 아카데미 운영 결과 호응도가 높아 확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정영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문의 288-9700

변호사개업인사

광주고등법원장을 끝으로 30여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새롭게 출발하오니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바랍니다.

- 전북 남원 출생
- 전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제2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2기, 육군법무관
-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판사,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군산지원장
- 제주지방법원장, 전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 제주도, 전북도, 전남도 선거관리위원

변호사 방극성 올림

- 업무개시: 2016년 5월 9일(월)
- 업무장소: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4 대동빌딩 203호(전주법원 옆)
- 대표전화: 063-276-2500
- 팩스: 063-276-2501
- 개업시간: 2016년 5월 20일(금) 오후 5시부터

주간(주말), 아간면접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남게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남게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남게를 단다!

〈강의특징〉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명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량운행(유치부, 초등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 한국유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쉽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캠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유변인협회, (사)한국유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 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